

## 백신 주권을 위한 길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- ◇ 한 언론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1호 코로나19 백신(스카이코비원) 생산이 잠정 중단된다고 보도
  -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확진자가 줄고,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당초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응해 개발된 백신(스카이코비원)에 대한 수요 급감이 원인
  - WHO 긴급사용목록 등재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해외승인 등에 대비해 원료생산은 지속
  
- ◇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중단이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가져올 더 큰 여파는 후발 기업들의 백신개발 추진력 저하 및 이로 인한 백신 주권 지연
  - 코로나19 백신 후발기업으로 향후 백신 개발 성공시에도 사업적(경제적) 불확실성이 높아져 국내 기업들의 백신 개발 의욕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향후 또다른 팬데믹에 대한 국내 대응력 미비 예상
  
- ◇ 연구개발 성공률이 낮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성이 낮은 분야, 특히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는 성공불응자<sup>①</sup>나 지원·구매<sup>②</sup>에 있어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 필요
  - 2009년 신종플루 팬데믹 발생시 녹십자가 신속히 백신 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200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백신 생산기반사업이 있었기에 가능
  - \* 독감백신원료 생산기반 구축사업(2005~2007까지 생산설비 구축, 시제품 생산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 생산 개시)
  
- ① 성공불응자제도
  - 정부가 개발리스크의 일부를 분담하는 제도로 해외자원개발 등에 적용 중
  - 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백신 개발에 정부차원에서 리스크 분산 가능 (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회수하되 실패시에는 0% 회수)
  
- ② 다년간의 지원·구매 프로젝트(사례 : 미국 바이오셴드 프로젝트)
  -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민간 기업이 연구, 임상, 제조, 조달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원하는 민간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으로 Project Bioshield Act가 2004년 7월 21일 발효되면서 시행되고 있음.
  - 현재까지 3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, 22개 의약품이 FDA 허가를 받았으며, 18개 의약품이 전략적 국가 비축 물량에 포함됨.
  - 예산은 2004년-2013년 56억 달러, 2014년-2018년 28억 달러, 2019년-2029년 71억 달러 집행 계획

### <참고자료>

1. SK바사 눈물... 국산1호 코로나 백신 생산 잠정 중단, 서울경제, 2022.11.22
2. 신종플루백신 본격 생산 돌입..독감백신 자급자족 기반 마련 및 세계 12번째 백신주권 확립, 녹십자 보도자료, 2009.7.1
3. 미국은 왜 원숭이두창 치료제 승인을 미루나,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, 2022.8.11